

- 04 Focus on
- 2023년 단체교섭 협약식 체결
- 08 KT 인사이드
- 진폐제해자들이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
사)광산진폐권익연대
- Special Theme
존중 In 갑질 Out
- 12 평화로운 배움과 가르침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한다
- 16 생명마저 위태롭게 하는 직장갑질, 방치는 금물!
- 20 ICT 리포트
- ICT 업계의 소셜미디어 사업
- 24 KTTU 생활백서
-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 러스틱 라이프를 꿈꾸다
- 26 KTTU 건강백서
- 구강 건강 위협하는 치아균열 주의보
- 28 여행여지도
- 흔저옵서예, 가을을 담은 제주
- 32 문화살롱
- <인어공주>와 '정치적 올바름'을 둘러싸고
- 34 카툰
조합원의 삶을 더욱 풍성히!
2023 단체교섭 합의안 살펴보기
- 36 KTTU NEWS
- 40 현장의 목소리 & 퀴즈

발행인 KT노동조합 위원장 최장복
 편집인 KT노동조합 조직처장 김인관
 발행일 2023년 10월 27일(격월간)

발행처 KT노동조합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206)
 T 031-727-2840 F 031-727-2815

기획·제작 (주)윌크디자인 T 02-332-7961~2

시대상이 담긴 미디어 전화번호부

공중전화와 함께 사라져간 또 다른 유물 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는 단순한 정보지가 아니라 각종 광고와 시대상이 담긴 미디어였다.
 1966년부터 한국통신 자회사인 KTD 한국전화번호부가 독점 발행한 전화번호부는
 전화가입자에게 1년에 1회 무료 배부됐다.
 1970~80년대를 거치며 전화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화번호부 사업도 각광을 받았다.
 당시에는 공중전화 박스에 전화번호부가 비치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 가정과 회사에서도 전화번호부를 받아두는 일을 꼭 챙길 정도였다.
 전성기에는 1년에 1천만 부 이상 발행되었지만 1990년대 들어
 가정용 전화가입자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이후 휴대전화 보급, 인터넷 확대 등으로
 전화번호부 사업은 쇠퇴했다.
 한국전화번호부는 난국 타개를 위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CD형태로된 전화번호부를 발매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거세지며 2005년 5월 발매를 중단했다.



위대한 유산

2023년 단체교섭 협약식 체결



KT노동조합과 회사는 10월 16일(월) 본사 17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단체교섭 본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최장복 위원장은 “올해는 14대 집행부의 마지막 단체교섭이어서 조합원께 약속한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했는데,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조합원들께서도 역대적으로 높은 92.5%라는 찬성률로 지지를 보내주신 만큼 노동조합도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단체교섭이 큰 성원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이는 회사의 대표 선임 자체가 예년보다 늦어진 제한된 교섭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이며 부족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성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섭 대표도 “안팎으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말 애 많이 쓰셨다”면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금번 교섭 타결을 계기로 회사와 직원이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단체교섭 합의안 내용

1. 임금인상

□ 개요 : 협약임금 3% 경역 인상 (인사평가인상률 2% 포함 시 총 5% 인상)



□ 임금인상 : 직원 1인 평균 연 235.5만 원 (기본급 154.5만 원, 평균 3% 수준)

기본급과 연동된 성과급, 초과근무수당 인상액 포함

□ 적용대상 : 합의일 현재 재직자 (G직)

□ 적용시기 : 2023.1.1. 일자 (소급적용)

• 임금인상 소급분(1.1~9.30) 지급일 : 2023. 10. 25(수) *별도계좌 지급

- 10월 급여분부터 인상분 반영 지급

• 2023년도 연봉조회 (2023년 임금인상 반영)

- 조회기간 : 2023. 10. 24(화)~

- 조회방법 : ERP-HR> 급여 > 조회 > 연봉내역 > 2023년도 기준연봉 조정내역

2. 경영성과격려금 지급

□ 의의 : 회사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경영성과격려금 500만 원

지급, 모두가 화합하고 합심하여 최고의 ICT기업으로의 도약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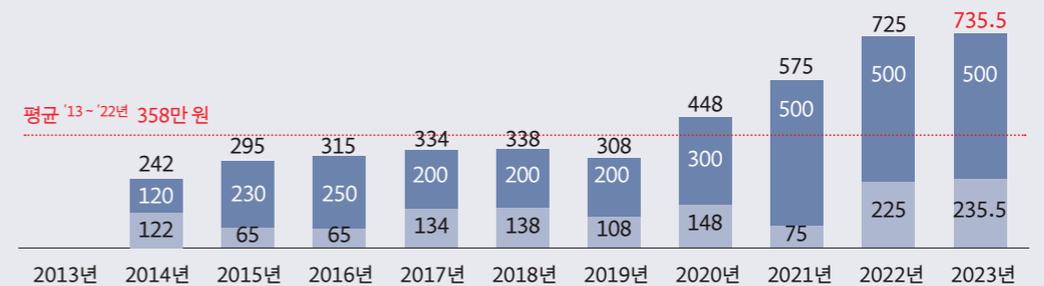
□ 지급대상 : 합의일 현재 재직자 (G직) * 전문경력직, 재직전출자, 무기계약직 포함

□ 지급액 : 1인당 500만 원 (별도계좌)

□ 지급일 : 2023. 10. 25(수)

▶ 협약인상+경영성과격려금 : 735.5만 원 (최근 10년 평균 358만 원 대비 2.1배)

(단위 : 만 원, ■일시금 ■협약 인상)



협약인상 : 기본급+부문·담당성과급+초과수당 기준 평균 인상액 *성과배분액 제외 기본급 미연동

▶ 금년 예상 평균급여 : 1억 800만 원 (전년 대비 500만 원 인상)

(단위 : 만 원)



공시기준의 평균급여는 소득세법상 과세항목 일시금, 복지포인트 등 포함된 금액

3. 업무용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취지 : 교체주기가 도래한 단말기 구입비 지원을 통해 업무환경 개선
- 주요내용
 - 대상 : 합의일 현재 재직자 중 지급일 현재 재직자 (개인명의 회선 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 원
- 지원시기 :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4. 미래육성포인트 개선

- 취지 : 직원 역량향상 및 사기진작
- 주요내용 : 미래육성포인트 지급대상 및 규모 확대

구분	현재	개선
대상	입사 10년차 이내 & 만 40세 미만	입사 20년차 이내 & 만 50세 미만
규모	50만 포인트	G3(과장)/G4(차장) : 100만 포인트 G1(사원)/G2(대리) : 50만 포인트

※ 2024년의 경우 2005년 입사 이후 & 1975년 이후 출생 동시 충족 조건

- 시행시기 : 2024년부터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5.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860억 원 (KT이사회 의결 이후 출연)

6.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Senior Consultant) 개선

- 취지 : 현장 우수 Senior 직원의 전문성 및 노하우 활용 확대
- 주요내용

구분	기존	개선
연간 채용규모(최대)	정년퇴직자의 15% 수준	정년퇴직자의 20% 수준(+5%p)
고용기간	기본 1년 + 추가 1년	좌동 ※ 단, 탁월한 성과자 등에 한해 고용기간 추가 연장 가능

- 시행시기 : 2024년 1차 선발 시부터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7. 우수 인재 동기부여 강화 및 사기진작 방안 노사공동 협력

- 취지 : 고성과자·고역량자 등 우수 인재의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
- 주요내용 및 시행시기 : 추후 노사 간 별도 협의

8. 급식보조비 및 구내식당 개선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 개요 : 타사 급식보조비 벤치마킹, 사내 구내식당 운영 현황 등을 조합적으로 분석하여 양질의 식사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 주요내용 및 시행시기 : 추후 노사 간 별도 협의

단체교섭 Q&A

임금인상 및 경영성과격려금

Q1. 임금인상에 따라 소급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A1. - 기본급, 성과급(부문/담당),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가산금(현장/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소급 지급됩니다.
- 임금인상 소급액은 'ERP-HR > 급여 > 조회 > 지급내역 > 월별 급여명세서 조회' 또는 '급여명세서'에서 10월 24일에 확인 가능합니다.

Q2. '23년 중도입사자·휴직자의 경영성과격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A2. 경영성과격려금 계산기간('23.1.1~10.10, 283일) 중 제외일수를 반영하여 지급됩니다.

구분	세부내용
제외일수	· 휴직일수 및 직위해제/정직/출산 등에 따른 무급일수
감액산식	· 지급기준액 × (제외일수 ÷ 계산기간 일수)

※ 부문·담당성과급과 동일기준 적용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개선

Q. 현재 Senior Consultant는 고용기간 추가 연장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 A. '24년 1차 선발 시부터 시행하여 '22.2.1. 이후 Senior Consultant로 선발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탁월한 성과자 등에 한해 고용기간 추가 연장 선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급식보조비 및 구내식당 개선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Q. 노사공동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언제까지 검토하나요?

- A. 노사공동위원회는 '급식보조비 및 구내식당 개선' 방안에 대해 내년까지 결론을 도출하여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급식보조비는 타사 벤치마킹을 통해 현재 KT 지급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국 160여 개의 구내식당 환경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 왼쪽부터 구세진 회장, 성희직 소장

사)광산진폐권익연대 진폐재해자들이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

KT노사는 지난 8월 '사)광산진폐권익연대' 진폐재해자 2,300여 가구에 10개 품목의 생필품이 구성된 '희망박스'를 전달했다. 희망박스는 1960~1980년대 산업화 시기 탄광이라는 극한의 일터에서 헌신한 광산 노동자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한 일로, 진폐증은 우리나라 최대 직업병이자 아직도 치료법을 찾지 못한 난치병이다.

석탄가루가 폐 세포에 붙은 뒤 폐를 굳게 만드는 질병으로, 이로 인한 호흡 곤란과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된다.

진폐재해자들은 '막장'이라 불리는 탄광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노동자로, 진폐증으로 판정받은 사람들은 약 3만 명 정도이며, 이중 5,000여 명은 이미 사망했다. 안타까운 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증 판정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아직도 많다는 점이다. 진폐 장애등급을 받으면 진폐 기초연금과 무상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등급을 받지 못하면 진료비 등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삶이 계속될수록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 셈이다. 광산진폐권익연대 구세진 회장과 성희직 소장은 이를 '엔터리 진폐 판정'이라고 부른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엔터리 진폐 판정자 구제를 우선적 목표로 삼아 활동을 이어간다는 다짐이다.



**진폐재해자
-진폐 요양 환자**

내게도 굵고 단단한 팔뚝
 자랑하던 때가 있었다
 내게도 뜨거운 사랑 가슴에
 품었던 그런 시절 있었다
 내게도 세상에 겁날 게 없던
 그런 젊은 날 있었다
 지금은 비록 산소호흡기에
 연명한 목숨이지만
 나도 한때는 자랑스러운
 산업역군 산업전사였다

⋮

「광부의 하늘이 무너졌다」中

**살아있을 때
제대로 보상하라**

“광부들은 이 땅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한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난 70년대 초 매년 200여 명의 노동자가 폭발·화재·질식 등으로 목숨을 잃었고, 4,0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요. 무사히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진폐증’이라는 병을 얻었죠.”

1957년생으로 자신을 ‘젊은 진폐재해자’라고 말하는 구세진 회장은 그 시절 방진마스크도 없이 어둡고 좁은 막장에서 탄 먼지를 흡입하며 채탄을 해온 결과, 수많은 노동자가 진폐증에 걸렸다고 말한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병명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진폐증 환자가 법적 보호를 받은 것은 1984년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다.

광산진폐권익연대 부설 정선진폐상담소 성희직 소장은 1986년 처음 ‘광부’가 되었고, 동료들의 연이은 사망사고를, 노동환경 개선의 목소리를 낸 동료들이 해고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투쟁의 현장에 뛰어들었다. 1989년 12월 해고노동자로 단식 농성하던 중 왼손 검지와 중지를 단지하면서 광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했다. 그때서야 정치권은 광산 노동자의 참혹한 노동환경에 관심을 기울였고 해고노동자들은 복직될 수 있었다.

두 번째 단지는 2007년에 있었다. 재가 진폐재해자의 권익 보호를 외치며, 31일간 단식투쟁에 이어 왼손 새끼손가락을 단지한 것인데, ‘살아있을 때 제대로 보상하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3년여간의 치열한 투쟁 끝에 2010년 4월 28일 진폐법은 대대적 개정을 맞고, 전국 1만2,000여 명의 재가 진폐재해자들이 ‘진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시 60대부터 80대까지 진폐재해자들이 하루에 5명씩 조를 짜서 릴레이 단식에



동참했는데요.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였다고 자부합니다. 저의 잠깐의 육체적 고통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을 앓아진 3만 진폐재해자에게 희망이 됐다는 생각에 가슴 벅찼습니다.”

**영터리 진폐 판정자를
구제하라**

성희직 소장은 「광부의 하늘」(1991)과 「그대 가슴에 장미꽃 한송이를」(1994), 「광부의 하늘이 무너졌다」(2022)를 펴낸 시인이기도 하다.

「광부의 하늘이 무너졌다」는 제가 온몸으로 세상에 알리고 싶은 광부들의 피땀 흘린 노동 역사와 진폐재해자 투쟁에 대한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제 시에 유난히 숫자가 많은 것도 그래서입니다. 크고 작은 사고로 순직한 광산 노동자들, 그분들께 술 한잔 올리는 마음으로 이 시집을 바칩니다.

- 「광부의 하늘이 무너졌다」 시인의 말 中

“채탄을 위해 발파하면 갱 안에 먼지가 자욱해요. 안전등 불빛으로 보면 미세먼지가 워낙 많아 마치 입이 자석처럼 쇠파우를 빨아들일 것 같은 공포가 느껴졌어요.” 성희직 소장이 투쟁으로써, 시로써 광산 노동자와 진폐재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알리는데 온힘을 다하는 까닭은 그 역시 ‘막장’ 앞에선 광산 노동자였기 때문일 터. 앞으로도 진폐재해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다짐으로 가장 우선적 목표는 진폐증 의심 환자가 공단 심사에서 떨어지는 것을 구제하는 일이다. 스스로를 ‘젊은 진폐환자’라고 칭하는 구세진 회장은 젊은 만큼 선배 노동자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일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구세진 회장과 성희직 소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관심’이다. 진폐재해자들이 우리나라 최대 직업병 집단인데, 그 시절 노동환경을 방관한 정부의 책임이 크므로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진폐재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교육은 사회의 거울

평화로운 배움과 가르침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한다

글 / 오동선 전국인권교육교사네트워크 공동대표, 전주화산초 교사



두들겨 펠 때는 ‘가장 무능한 집단’, 급여 줄 때는 ‘국민혈세나 축내는 월급루팡’, 괴롭힐 때는 ‘가장 만만한 동네북’, 일 떠넘길 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집단’, 이게 대한민국의 교사가 처한 자조적인 현실이다.

최근 서이초, 관평초, 호원초 등에서 벌어진 이른바 보호자의 진상 감질로 벌어진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동료 교사들이 휴직으로, 사표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고,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에 매 주말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어쩌다 교육 현장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지금의 학교폭력과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 보호자의 과도한 민원 등은 교사 혼자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 인력이나 시스템도 없고, 보호자가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해도 교사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처지다. 정상적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직위해제부터 당하고 시작하는 불합리함에 수많은 헌신적인 교사들이 병가를 쓰다가 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절망하고 있다.

교육 현장이 이렇게 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극단적 개인주의의 사회적 분위기가 학교 현장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즉 각자도생 경쟁 사회 질서가 그대로 투사되는 학교, 교사가 학생들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하는 학교 안팎의 상황, 문제가 발생하면 온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문제해결을 떠넘기는 사회적인 풍토.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교육의 기본 전제라 할 서로 간의 존중이 사라지고 때론 교사를 분풀이나 공격의 대상으로 여기게 한다. 그 결과 교사들은 교육적 열정과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잃어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되묻게 된다.

지금 시급한 건 ‘교육노동자’들을 위협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안전판이다. 교사들이 지금 교권을 말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권력이나 권위,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봐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육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학교는 ‘금쪽이’ 보육 기관이 아니다

학교는 사회의 어린 구성원들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기르는 곳이다. 지구는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으며 양육되어진 ‘금쪽이’들도 학교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운다. 세상엔 ‘금쪽이’들이 많고 자기도 그중 하나라는 것, 세상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것, 아무리 떼를 써도 선생님은 엄마처럼 즉각 달려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등.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배우는 것이다. 하지만 누가 더 ‘금쪽이’인가를 경쟁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더 특별한 ‘금쪽이’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며 벌어지는 교사와 학교시스템을 향한 과도한 공격은 교육공동체를 파괴시킨다. 학교가 하는 일과 가정에서 양육하고 케어하는

일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을 넘어 보육과 양육, 방과 후 활동 등 아이의 성장과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교사의 교육적 권한과 학생의 학습할 권리, 보호자의 참여가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룰 때 학교 교육이 성공한다. 하지만 구성원 모두가 같은 종류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건 아니다.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권한과 책임에 따른 위치와 역할이 다른 것이다.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자가 가진 역할의 차이를 혼동하면 선을 넘게 되고 절제와 균형이 깨진다.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교육은 건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된다.

부족한 입법. 하지만 안정화의 시작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시작된 검은 점들의 호소가 사회여론을 움직이고 있다. 일부 보호자의 악성 민원과 소송 남발로 교사들이 고통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9월 21일 국회에서 교사들의 절절한 요구가 일부 반영된 이른바 ‘교권 4법’이 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훑어보면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경우 교육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벌어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도 특별교육의 조치를 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학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난 2013년 계모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 학대법을 제정한 취지는 좋았지만, 이 법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만들면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모든 유형의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규정한 것을 수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법을 교육활동에 조금 과장해서 적용해본다면 눈만 흘려도 아동학대로 큰소리로 잘못을 지적해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보호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다. 심지어 허위신고로 드러나도 무고죄 등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 “일단 신고부터 하고, 아니면 말고”하는 식의 황당한 교사 공격이 범람하게 된 것이다. 애초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든 법의 허점을 파고든 일부 보호자들이 학교와 교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셈이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된 약 6,800여 명의 교사 중 기소까지 간 경우는 전체의 1% 남짓에 불과하고 이는 아동학대 신고가 ‘아동보호’라는 원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로 충분하다. 이쯤 되면 “법으로 교사를 때린다”는 표현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법의 무분별한 오남용으로 인해 공교육이 뿌리째 흔들리는 지금, 당초 입법목적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법 개정애 손을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촘촘히 만들되, 건강한 보호자의 학교 참여마저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학교 공론장으로 보호자를 초대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것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분노의 반대편에 보호자와 학생들을 상정해두고 학생 인권 보호 때문에 교사들이 힘들어졌고 그 중심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으니 반드시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애초 상황인식이나 문제 설정이 잘못되니 정상적 토론이 어려워지고, 교권 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여 주홍글씨를 새기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폭력에 더 큰 폭력으로 대처하자는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방안만 내놓게 되는 것이다.

울분에 찬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점에 놓고 사고하는 이런 흑백논리로는 인권의 조화로운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실제로 거리로 나온 교사들이 “학생에게 인권을, 교사에게 교육권을”이라고 외치는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자기만의 도그마는 이렇게 자신을 율타리에 가두고, 타인을 피곤하게 만든다. 특히 이런



접근법은 보호자의 정당한 의사 개진을 배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교원의 ‘교육권’이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 권한이고, 보호자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이 없이는 원활한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이분법적 단순 논리는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방해할 뿐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마저 헛다리를 짚고 있기에 교사들은 더 당황스럽다. 교육부 차관은 “과도한 학생 인권 보장이 교권의 추락을 가져왔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다. 진단이 잘못되니 처방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

학교 안의 권리를 경쟁구조로 인식하고 흑백논리로 사고하는 낮은 인권감수성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지금 일부 시도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과녁을 한참 잘못 맞은 것이며, 학교와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벌어지는 흥위병들의 분서갱유와 다름 아닌 것이다.

교사와 보호자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관계

교사와 보호자는 서로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고 생산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협력하는 주체로, 각기 다른 목소리로 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투쟁하는 개체가 아니다.

물론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보호자와 교사 간 갈등 중 어떤 부분은 학교가 담당해야 할 기능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교원들은 학교 교육을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수업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보호자는 학교가 돌봄·보육·급식 등 모든 것을 케어해주길 기대한다. 이런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의 ‘늘봄학교’ 같은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둘 간의 갈등과 충돌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선거 시기 보호자의 표를 얻기 위해 교육계 당사자들과의 합의 없이 ‘교육과 보육 모두를 정부가 책임지겠다’거나 ‘수요자 맞춤형 교육’ 같은 걸 선포해대니, 보호자는 학교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지난해 1월 발표한 ‘학부모와 교사 간 상호 신뢰 향상 방안’에 따르면 교사에게 학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민원·항의’, ‘이기적인’, ‘불신’, ‘의사소통’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고, 학부모는 ‘무관심’, ‘문제에 대한 대처’, ‘소통’ 등을 거론했다. 서로 간 신뢰 향상 방안을 물었을 때도 교사는 ‘교권 강화·보호’와 ‘의사소통’을 주로 이야기했고, 학부모는 ‘대면 상담’, ‘소통’, ‘관심·사랑·애정’을 언급했다. 서로 갈등은 있지만 어쨌든 ‘소통’이란 것을 빼놓고 신뢰 회복을 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양쪽 모두 알고 있는 셈이다.

대개의 교사가 좋은 교사이듯 대개의 보호자는 건강한 보호자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촘촘히 만들되, 건강한 보호자의 학교 참여마저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학교 공론장으로 보호자를 초대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서로 간의 ‘존중’이다.

생명마저 위태롭게 하는 직장갑질, 방치는 금물!

하루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일터, 어떤 이들에게는 일터에서의 시간이 지옥과도 같다고 한다. 바로 '직장갑질' 때문이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주변인들의 암묵적 묵시는 조직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약화시켜 '갑질' 문화를 만연하게 한다. 갑질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일 것이다.



영혼까지 태우는 '직장 내 괴롭힘'

몇 년 전 간호사계의 '태움' 문화가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다.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의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교육을 명목으로 후배 간호사를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을 길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태움이 한 간호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으며,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촉발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갑질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취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들을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가 신고를 받거나 인지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노동자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노동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명령도 필요하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가 신고를 한 노동자나 피해노동자 등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일도 발생하는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노동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

'고객 갑질'로 병드는 노동자들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고객 갑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갑질이 언제 어디서든 그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는데, 이는 노동자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에도 치명상을 입히는 유해요인으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갑질을 고객서비스, 직장문화 등으로 포장하면서 묵인해 왔고 그 결과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자리 잡은 고질적 병폐가 되어 버렸다. 2018년 10월에 이르러서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일터 곳곳에서의 '갑질'이 만연한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을 직접 대하거나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 안내를 해야 한다. 또한 고객과의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 밖의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해 고객의 폭언 등을 당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야 한다. 노동자가 피해에 대해 고소, 고발, 손해 배상 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증거물,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지원을 해야 한다. 피해노동자가 이와 같은 사후 조치를 요구할 때 사업주가 오히려 피해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1. 사내 고충처리 부서에 신고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350, 1522-9000)
3. 민사 형사상 고소, 고발

1.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신체적 괴롭힘

▶ 폭행 :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팀장이 기분이 안 좋아졌는지 “상사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어깨를 때렸습니다.

▶ 위협 : 물건이나 서류 등을 던지려고 하거나 던지는 행위

대표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서류를 보고 저를 불러 소리를 쳤고, 제가 급한 업무에 관해 얘기하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책상 위 물건을 넘어뜨렸습니다.

언어적 괴롭힘

▶ 폭언 :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행위

팀장이 저에게 싸가지없다며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하루는 “이런 놈은 회사를 나가야 돼, 정신 못 차리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 모욕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실장님은 “덧셈 뺄셈도 못 하는 경리는 처음이다”, “회사 망하게 하려고 들어 왔냐”, “너처럼 일하는 애 처음 본다”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업무적 괴롭힘

▶ 무시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

업무를 하면서 상사에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네가 그걸 알아서 뭐하려고 알아보냐”며 화를 냈습니다. 상사는 시키는 것만 하라는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 전가 : 본인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본인이 꼭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전가하고 공은 자신의 덕으로 돌려요.

▶ 차별 : 휴가, 복리후생,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옆 사무실 직원에게 비품을 빌려줬는데 상사는 “정규직도 아니면서 왜 빌려줘?”라고 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잡일이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는 경우, 회식을 강요하는 행위가 업무적 괴롭힘에 포함

업무 외 괴롭힘

▶ 후원 : 특정 종교나 단체의 활동 또는 후원을 요구하는 행위

복지관에 매달 4만 원씩 후원금을 강요하고 내지 않으면 담당 팀장이 따로 불러서 미납금을 내라고 강요했습니다. 또한, 후원 행사를 빌미로 표를 20장 팔게 시키고, 팔지 못하면 본인 돈으로 메꾸라고 합니다.

▶ 공연 : 회사 행사에서 원치 않는 장기자랑, 경연대회 등을 요구하는 행위

워크숍을 기획하면서 임원들이 직원 장기자랑을 하라고 합니다. 팀별 장기자랑 불참 시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안 한다고 하면 불이익이 불 보듯 뻔해서 정말 괴롭습니다.

2. 직장갑질 대처법

‘직장갑질’은 그때그때 SNS에 기록

기록 시점이 남고, 조작 우려도 적어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녹음·녹취’ 적극 활용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면 불법행위 아니에요.

CCTV·목적자 확보하고 동료들과 대화하기

물증 확보·의견 공유로 공론화가 가능해요.

근로계약서·사직서 등 문서 서명·제출은 신중히

사직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되도록 쓰지 말아야 해요.

<출처 : 직장갑질 119>



ICT 업계의 소셜미디어 사업

글 / 최선규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LG유플러스가 통신사업의 정체를 타개할 신사업으로 자체 SNS ‘베티’를 출시하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성쇠의 관건은 문화적 역량을 얼마나 발휘하는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의 성공 요소는 통신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가 SNS 플랫폼을 출시하는 이유는?

LG유플러스가 지난 3월 자사 소셜미디어(SNS) ‘베티’를 출시했다. 베티는 사진과 1,000자 이내에 글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다. LG유플러스는 내부의 신사업을 발굴하는 ‘인피니스타(InfiniSTAR)’에서 베티를 개발했으며, 3년 내 월 이용자 100만 명을 확보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월 이용자 100만 명이면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소셜미디어 순위에서는 10위인 에브리타임(월 이용자 200만 명), 블라인드(120만 명), 디시인사이드(60만 명) 수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LG유플러스가 소셜미디어 시장에 뛰어든 배경은 무엇일까? 2010년대 이후 통신사업의 성장 정체가 뚜렷해질 무렵 KT, SKT는 신성장 사업 기회를 발굴해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시행해 왔다. 반면 LG유플러스의 행보는 더딘 편으로, 소셜미디어

사업과 함께 OTT 사업도 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인수설이 나돌던 OTT 사업자 왓차를 인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OTT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는 KT가 시즌(Seezn)을 티빙(TVING)에 넘기고, SKT가 옥수수과 웨이브(Wavve)를 합병하며 정리하는 등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이다.

SNS 플랫폼들의 흥망성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셜미디어 사업은 복합미디어 그룹 및 ICT 업계의 주요 사업 분야였다. 미국의 영화, 뉴스, 방송 복합미디어 그룹인 뉴스코프(News Corporation)는 당대에 소셜미디어로 각광 받던 마이스페이스(MySpace)를 인수해 소셜미디어 사업에 진입했고, 세계 1위 포털기업인 구글은 오컷(Orkut)이라는 소셜미디어를 자체 개발했으며, 국내 1위 포털 네이버는 미투데이(Me today)를 출시해 소셜미디어 사업을 했다. SKT는 싸이월드라는 10~20대에 인기 있던 미니홈피 서비스 업체를 인수해 사업에 진출했다. 그러나 이런 올드 미디어 기업의 소셜미디어 사업진출은 모두 예외 없이 참패를 겪게 된다. 뉴스코프는 페이스북에 밀려 마이스페이스를 헐값에 매각했고, 구글과 네이버는 이용자 감소에 오컷과 미투데이 서비스를 종료한다. SKT는 당시 국내 1위였던 싸이월드 서비스를 야심 차게 미국 시장에 진출시키기도 했으나 몇 년 만에 철수했고 한국 시장마저 페이스북에 밀려 결국은 싸이월드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게 된다. 미국의 시장가치 1위 복합미디어 그룹인 디즈니도 소셜미디어에 진출하기 위해 트위터 인수 전 단계까지 간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인수를 포기하는데 이는 트위터에 만연한 표현의 자유가 디즈니가 지향하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과 마찰하는 데서 발생하는 위험성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소셜미디어 사업의 위험성이 자체적으로

높다는 이유도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월간 사용자 1~7위에 위치한 소셜미디어를 보면 밴드(2위), 네이버카페(5위), 카카오토리(4위)만이 기존 ICT 업계가 사업하는 소셜미디어다(유튜브는 구글의 소셜미디어지만 OTT이므로 소셜미디어 순위에서 제외하였다).



인스타그램(1위), 페이스북(3위) 트위터(6위), 틱톡(7위) 등은 모두 새롭게 창발한 기업의 소셜미디어이다. ICT 업계의 소셜미디어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밴드는 코로나 시기 비대면 모임 수혜로 월간 사용자 수의 순위가 올랐지만, 이용자들이 밴드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가 미비한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네이버카페는 20년 이상 오래된 서비스로 성장성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다. 카카오토리는 기존에는 이용자 순위가 높았으나 서비스의 참신성이 떨어지면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순위가 하락하는 중이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ICT 업계가 소셜미디어 사업 성공을 위한 기업역량을 보유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통신이나 미디어 사업 분야의 기업은 모두 소셜미디어 사업에서 실패했으며, 그나마 포털사업 분야의 기업이 기존의 서비스 역량을 소셜미디어 사업에 일부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NS 플랫폼의 성공 요소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소셜미디어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갖춰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 소셜미디어는 글자 그대로 이용자들이 보유한 소셜(social)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해소하는 서비스이다. 소셜 커뮤니케이션은 전화나 문자, 이메일과 같은 사적(private) 커뮤니케이션과 신문 방송과 같은 매스(mass) 커뮤니케이션의 중간적 위치에 속한다. 소셜 커뮤니케이션 사업은 사적 커뮤니케이션 사업에 필수적 요소인 통신의 신속성·안정성·보안성과 같은 기술적 능력도 요구되지만 매스 커뮤니케이션 사업과 같이 문화적 능력도 요구된다.

소셜미디어 사업이 문화사업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출시 서비스들의 명멸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2004년

등장한 페이스북은 마이스페이스를 제치고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그러나 텍스트 위주의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이라는 2010년에 창업된 사진 위주의 소셜미디어에 15~35세의 연령대 이용자들을 빼앗기면서 1위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이런 점을 예측해서인지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10억 달러(한화 약 1조 4,000억 원)로 인수하는데, 이 인수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신의 한수가 된 셈이다. 2021년에는 특정한 초대장 링크를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는 폐쇄형 소셜미디어인 클럽하우스가 인기를 끌며 한 달 이용자 수가 200만 명을 상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급정보를 원 유명인들이 클럽하우스를 떠나가면서 요즘은 인기가 시들해졌다.

지난해에는 자기 과시적 일상을 보여주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피로감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자기 자신의 실재를 보여준다'는

가치를 내건 소셜미디어인 비리얼(BeReal)이 인기를 끌었다. 비리얼 이용자는 매일 알람을 받으면 2분 이내로 스마트폰 앞뒤 카메라로 자신의 일상을 찍어 게시해야 한다. 꾸미지 않은 자기의 현재를 보여주고 자신의 일상을 계속 기록해 나간다는 점에서 비리얼은 젊은 세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2022년의 소셜미디어로 불렸다. 그러나 비리얼의 인기는 올해 초부터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신선한 재미가 있었으나, 몇 번 해보니 재미가 없어진 것이다. 실재의 나를 보여주는 것은 소셜 커뮤니케이션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이다. 젊은 세대들은 서비스의 진입이 빠르지만, 탈퇴도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문화적 역량을 얼마나 발휘하는지가 관건

LG유플러스가 출시한 베티는 화려한 일상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단점을 제거하고, 일상을 기록하는 비리얼의 좋은 점을 넣어 일상의 기록을 통해 자기를 더 나아지게 계발하는 '베티러(betterer)'를 지향한다고 한다. 베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이 사람을 팔로우하지만 핀터레스트(pinterest)와 같이 주제별로 보드가 나타나게 하는 형식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베티의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월간 사용자 순위가 100만 수준에 해당하는 소셜미디어는 에브리타임, 블라인드, 디시인사이드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서비스의 차별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에브리타임은 대학생이 학번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로 교수의 강의 정보, 학교생활 관련 팁 등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정보가 빼곡히 들어있다. 블라인드는 직장인이 회사 메일로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익명 소셜미디어다. 직장 상사에 관한 뒷담화 등 다른 곳에서 듣기 힘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디시인사이드는 개방형 소셜미디어이지만 태생은 디지털카메라 관심 보유자에서 시작해서



비리얼(BeReal) 이용자들은 매일 알람을 받으면 2분 이내 자신의 일상을 게재해야 한다. 현실적인 자기 자신의 실재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젊은 세대의 선풍적 인기를 끌며 '2022년의 소셜미디어'로 불린 바 있다.

이용자들의 자체적 움직임에 의해 남성 보수 위주의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한 소셜미디어다. 통신사업자들은 통신사업의 정체를 타개할 신사업 기회를 꾸준히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해왔지만, 번번이 실패를 맛보곤 했다. 통신사업자가 다각화에 성공한 것은 IPTV 사업, KT의 OTS(Olleh TV SkyLife), SKT의 11번가 사업, KT의 채널 ENA 콘텐츠 제작 정도이다. 이 중에서 문화사업의 성격을 지닌 것은 ENA뿐이다. 소셜미디어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통신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충족하는 문화적 사업역량이 중요하다. 문화적 역량을 얼마나 발휘하는지에 따라 LG유플러스 베티의 성쇠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 러스틱 라이프를 꿈꾸다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가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복잡한 도시에 피로감을 느끼고 자연으로 떠나 소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뜻한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달 살기’ 혹은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살아가는

‘오도이촌(五都二村)’ 생활방식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러스틱 라이프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알아보자.



힐링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찾는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삶에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놓았다. 시골보다 도시가 주목받던 이전과는 다르게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여유를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 ‘워라밸’을 중시하고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세대에게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이중생활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본격적인 러스틱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나만의 보금자리를 찾아야 한다. 오도이촌 혹은

‘촌캉스(농촌+바캉스)’ 같은 단기간 농촌 생활이면 숙박 사이트를 통해 머물 곳을 마련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달 이상 장기간 머물게 될 경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 체험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자. 대표적으로 귀농·귀촌 포털인 ‘그린대로’ 홈페이지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농산물 재배, 농가주택 관리법, 영농체험 등의 활동과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체험 내용과 일정을 고려해 취향에 맞게 내가 살아볼 지역을 골라보는 것도 좋다. 일부 지자체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의

입교자를 매년 모집한다. 기초 영농교육, 농장 실습, 전문 영농 기술 현장전학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귀농 생활을 경험해 보기에 안성맞춤이다. 그 외에도 귀농·귀촌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린대로
전국의 모든 귀농귀촌 정보·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Tip
농촌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농장형 팜카페(Farm Cafe)

뭐하농하우스
귀농귀촌교육, 농촌살이 프로그램, 팜카페와 팜가든을 운영하고 있다. 계절 농작물로 만든 특별한 메뉴를 경험할 수 있다.



팜잇
스마트팜을 활용한 새로운 6차산업 형태의 카페. 울산 청년창업농들이 직접 기른 신선한 농작물을 재배현장에서 바로 맛볼 수 있다.



내마음의 숲
농부가 운영하는 새참 컨셉의 브런치 카페. 준비된 고정 메뉴, 장화를 착용하고 야외의 텃밭에서 콘셉트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오도이촌의 로망이 실현되는 곳, 농막

빌딩 숲에 익숙한 도시인들은 이따금 시골에서의 세컨하우스를 꿈꾸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실행을 망설인다. 그럴 때 사람들이 찾는 것이

바로 농막이다. 농막이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기구와 수확물을 보관하거나 일시적인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시설을 뜻한다. 세컨하우스에 비해 투자 비용과 관리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텃밭을 가꾸며 잠시 쉬어갈 곳이 필요한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최근 불법 농막 문제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설치기준과 필요서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설치기준**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주거 목적이 아닐 것
 - 연면적의 합계가 20m² 이내로 설치되어야 함

- 필요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농막 배치도 (지적도상 농막의 배치)
 - 농막 평면도 (농막의 치수와 면적 표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유의사항**
- 주거 목적의 야간 취침은 불가하지만, 농작업과 관련하여 야간 취침은 가능
 - 신고 없이 무단 설치하면 불법으로 간주
 - 농막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농지불법 전용에 해당



이외에도 토공사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약 6평(약 20m)에 달하는 농막은 자재나 인테리어에 따라 적게는 천만 원, 많게는 오천만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차량 이동이 편리한지도 알아두는 게 좋다. 또, 농막을 설치할 지역 지자체에 미리 전기, 수도 및 정화조 등의 설비 허가사항을 문의해야 한다. 사전 조사와 답사를 통해 철저히 준비한 후 농막을 설치한다면, 더욱 풍요로운 오도이촌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구강 건강 위협하는 치아균열 주의보

위아래로 맞물려 있는 우리의 치아는 매일 수십 kg의 무게를 견디고 있다.
때문에 시간이 흘러 하중이 누적되면 치아에 금이 생길 수 있다.
치아의 실금, 균열이 발견될 경우, 증상 및 진단에 대해 알아본다.



이유 없는 통증, 알고 보면 치아균열?

치아 실금은 맨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다. 우리의 치아는 표면의 딱딱한 법랑질과 안쪽의 상아질 구조로 형성되어 큰 충격이 아닌 이상 쉽게 깨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습관은 치아를 약하게 만들고 균열이 생기게 한다.

이러한 ‘치아균열증후군’(Cracked tooth syndrome)은 균열, 파절, 분리 등으로 나뉘는데, 초기에는 맨눈으로 잘 보이지 않고 통증이 심하지 않아 모르고 넘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치아균열은 서서히 치아 내부의 신경을 자극하고, 외부에 감염이 되면 치통을 일으킨다. 치아 표층 아래 상아질까지 균열이 생겨 날카로운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다. 이를 치료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뿌리까지 염증이 내려와 치아가 부서지는 치아 파절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에는 자연 치아를 살리지 못하고 발치를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에 치아균열은 초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40대 이후 흔하게 발생되지만, 평소 구강에 안 좋은 습관을 지닌 사람들은 이에 무리가 가는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치아균열이 유발될 수 있다. 이들에게는 한 개의 균열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균열이 생길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방치는 금물! 치료법과 예방법은?

치아균열의 치료법은 치아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다. 치아는 금이 가더라도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균열이 생긴 틈을 레진으로 때우거나 크라운 보철 치료를 통해 틈이 더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치료비는 10만 원대부터 많게는 50만 원대까지 발생한다. 하지만 뿌리까지 균열이 진행되어 치주조직이 파괴된 수준일 경우에는 발치 후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임플란트 비용은 약 100만 원대에서 150만 원대 사이이지만, 세부 사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치료를 미룰수록 고통과 비용은 커지니 제때 알맞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치과에 내원해 스케일링이나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치아균열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밀한 검사가 요구된다. 또,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먹거나 이를 악무는 등 치아에 무리가 가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이갈이로 인한 치아 마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진을 받은 후 보호장치인 나이트가드 혹은 스플린트를 착용해 압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Tip 치아균열을 일으키는 안 좋은 습관



1. 질기고 딱딱한 음식 깨물어 먹기

단단한 얼음을 씹어 먹는 행위는 치아에 미세 실금이 갈 수 있음은 물론, 턱관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오돌뼈, 사탕, 오징어, 견과류처럼 치아에 무리가 가는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2. 한쪽으로만 씹기

한쪽으로만 음식물을 씹으면 한쪽 치아에만 피로도가 가중되어 버티지 못하고 금이 갈 수 있다. 한쪽 턱관절만 과하게 쓰인 탓에 저작근이 발달되어 턱관절 장애, 안면비대칭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3. 이갈이·이 악물기

밤에 잘 때 이를 갈거나, 평소에 집중하거나 운동을 할 때 습관적으로 이를 악무는 경우가 있다. 이갈이가 지속되면 치아 표면이 마모된다. 심해지면 치아 내부층이 노출되어 통증이 동반된다. 특히 수면 중 이를 갈 경우, 평소 무는 힘의 2~3배에 달하는 힘이 가해져 더 치명적이나 주의해야 한다.

4. 차고 뜨거운 음식 동시에 섭취하기

‘이열치열’도 치아 건강에는 해롭다. 지나치게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동시에 먹으면 온도 차이로 인해 치아에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면서 실금이 생길 수도 있다. 뜨거운 음식을 먹기 전후로 찬 음료를 마시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5. 치아를 도구로 사용하기

병뚜껑을 이를 사용해 따거나, 테이프를 이로 뜯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빨대를 씹는 습관 역시 좋지 않다. 치아에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금이 갈 위험이 커진다.

혼저옵서예, 가을을 담은 제주

‘놀멍쉬멍’이라는 제주도 말이 있다. ‘놀면서 쉬면서’라는 의미인데, 복잡한 도시를 떠나 여유를 느끼고 싶은 이들에게 제주를 추천한다. 산과 바다가 가득한 풍경을 즐기며 제주를 여행해 보자. 물결처럼 일렁이는 억새풀들과 단풍으로 물든 한라산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가을 공기에 쌀쌀해진 마음을 따듯하게 데워 줄 제철 음식들도 빠질 수 없는 별미다. 오감을 만족시켜 줄 제주 여행지들을 소개한다.



새별오름

넓은 벌판을 은빛 억새가 수놓고 있는 새별오름. 매년 들불축제가 개최되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명소로 꼽힌다. 높은 억새밭 사이로는 탐방로가 갖춰져 있는데, 길을 따라 정상에 오르기까지 1시간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 정상에 도착하면 서쪽의 아름다운 해변과 비양도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제주에는 다양한 오름이 있지만, 일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출입이 제한되거나 통제되는 곳도 있다. 때문에 오름 방문 전 제주관광정보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제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 59-8



9.81파크

애월과 한라산 중간에 있는 국내 최초의 전용카트와 트랙을 갖춘 무동력 레이싱 테마파크다. 탁 트인 야외 트랙에서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달릴 수 있어서 인기다. 중력가속도만으로 최고 속도 40km/h를 내는 짜릿한 레이싱과 레이저 서바이벌, 하늘그네, 범퍼카 등의 특별한 실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레이싱 트랙을 가상 공간으로 옮겨놓은 ‘메타981’도 모미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레이싱 기록과 탑승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친구들과 배틀 레이싱도 가능하다.

◎ 제주 제주시 애월읍 천덕로 880-24



한담해안 산책로

‘곽금울레길’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애월항에서 괘지과물해변까지 해안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다. 제주시의 숨은 비경 31곳 중 하나로 선정된 적이 있을 정도로 눈부신 풍경을 뽐낸다. 특히 서쪽에 위치한 만큼 해가 질 때 더욱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제주 올레길 15코스인 이곳의 길이는 약 1.2km, 용암이 굳어 생긴 현무암 등의 바위와 투명한 바다를 보며 여유롭게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해안선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길이 이어져 있는데,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 제주 제주시 애월읍 괘지리 1359



비자림

‘천년의 숲’이라고도 불리는 제주 비자림은 5~800년생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자리해 있다. 이 숲의 터줏대감인 최고령 나무는 고려 명종 20년에 태어나 ‘새천년 나무’로 지정되기도 했다. 비자림의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각마다 출발하는 탐방해설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다. 도시의 빌딩 숲에서 벗어나 피톤치드 향이 가득한 비자림의 상쾌한 공기가 그간의 피로를 씻어내릴 것이다.

◎ 제주 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 55



비양도

섬 속의 섬, 비양도는 제주 서쪽 우도의 유명 여행지 중 하나로 꼽힌다. 배낭을 멘 캠퍼들이 즐겨 찾는 백패킹의 성지이기도 하다. 우도와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 인위적인 시설이 없어 잔디밭 위에서 제주의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며,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 또한 그림 같다. 이외에도 검멀레해변의 해안절벽과 우도봉 꼭대기의 등대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다. 협재해수욕장에 있는 비양도와 헛갈리기 쉬우니 가기 전 주소를 확인해봐야 한다.

◎ 제주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동문재래시장

제주도의 다양한 특산물과 전통 먹거리가 가득한 동문 재래시장. 굴을 이용한 디저트들과 싸고 싱싱한 회가 군침을 유발한다. 게딱지밥, 흑돼지 롤, 문어빵, 천혜향 아이스크림, 오메기떡 등의 음식들이 즐비해 있다. 동문 시장은 낮 동안은 재래시장, 밤에는 야시장으로 변신한다. 야시장은 자정까지 이어지는데, 부스마다 마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오후 10시 이전에 방문하는 걸 추천한다.

◎ 제주 제주시 관덕로14길 20



성음녹차마을

화산 암반수로 키운 녹차를 생산하는 녹차재배지다. 녹차마을 영노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은 녹차한잔’으로 주소를 설정하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 드넓은 녹차밭의 한가운데에 숨겨진 이름 없는 동굴은 관광객들에게 사진 명소로 유명한 곳이다. 같이 운영되고 있는 카페에서 녹차로 만들어진 음료를 맛보고 녹차죽목체험을 하며 피로를 푸는 경험도 할 수 있다.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4778



한림읍

제주 남부



한라산 국립공원



안덕면



카멜리아힐

대정읍



천제연폭포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쇠소깍



천제연폭포



쇠소깍

한라산에서 시작된 중문천이 바다로 흐르면서 형성된 이 폭포는 주상절리형의 암벽과 푸른 빛의 연못이 절경을 이룬다. 총 3개의 폭포로 나뉘어져 있으며, 2단과 3단 폭포 사이에는 ‘칠선녀다리’라고도 불리는 선임교라는 아치형 다리가 있다. 1폭포는 건천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가 많이 내릴 때만 물이 떨어진다. 천연기념물 제379호로 지정된 이곳은 최근 주상절리와 연못을 있는 관광로 전망 데크가 설치되어 폭포를 배경으로 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알려지고 있다.

📍 제주 서귀포시 천제연로 132

효돈천 끝자락에 위치한 계곡이다. ‘쇠소’는 소가 누워 있는 모습의 연못을, ‘깍’은 ‘마지막 끝’을 의미한다. 흘러내린 용암이 굳어지며 형성된 계곡인 만큼 바다와 숲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독특한 지형을 자랑한다. 제주 올레길 6코스가 시작되는 곳이어서 매년 올레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산책로를 내려가면 제주의 전통 뗏목인 ‘테우’와 ‘나룻배카약’을 체험할 수 있는데, 직접 노를 저으며 쇠소깍 계곡 안쪽 깊숙한 곳까지 살펴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필수코스도 통한다.

📍 제주 서귀포시 쇠소깍로 104



카멜리아힐

동양에서 가장 큰 동백 수목원이다. 약 19만 8000m² (6만 평)의 부지에 80개국의 동백나무 6,000여 그루가 심어져 있다. 가을을 맞아 핑크물리라 루비물리, 팜파스그라스가 식재되어 가을 정취를 느끼며 기념사진을 남기기에 좋다. 총 29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고, 40분에서 80분 정도가 소요된다. 핑크물리는 가을정원 코스에 위치해 있다. 기념품 가게에서는 동백꽃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절기마다 입장 마감 시간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166



이중섭거리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 이중섭이 제주도에서 피난 당시 거주했던 초가를 중심으로 조성된 거리다. 그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생긴 이 거리는 이중섭의 사망주기에 맞춰 매년 10월 말 이중섭 예술제를 개최해왔다. 그가 잠시 머물렀던 초가집에서 언덕길을 올라가면 그의 작품이 전시된 이중섭 미술관이 있는데,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 골목마다 예술가들의 개성 있는 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다. 근처에 있는 서귀포 최초의 극장인 서귀포관광극장에서 오래된 흔적들을 살펴보고 추억여행을 해도 좋다.

📍 제주 서귀포시 이중섭로 29



제주지역 조합원이 추천하는

제주의 맛

안녕전복

제주 공항 근처에 있는 전복요리 전문점. 신선한 활전복 내장으로 끓인 전복죽이 대표 메뉴다.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색적인 음식을 찾는다면 특제 소스가 어우러진 아보카도 전복밥을 먹어보는 것도 좋다. 이외에도 전복물회, 전복초밥, 전복구이 등의 다양한 전복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다.



📍 제주 제주시 관덕로 3

알맹디식당

1997년도부터 운영된 멜국과 각재기국 맛집. ‘멜’은 멸치를, ‘각재기’는 전갱이를 의미한다. 멜국을 주문하면 큼직한 멸치가 통째로 들어간 시원한 국물을 맛볼 수 있는데, 양념을 최소화해 재료 본연의 담백한 맛이 살아있다. 강원장, 얼갈이배추 등 밑반찬에서도 제주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멜튀김 역시 별미다.



📍 제주 제주시 선덕로 32

우진해장국

고사리육개장이 대표 메뉴인 향토음식점. 오랜 시간 불린 고사리를 삶아 갈아 넣은 걸쭉한 국물이 일품이다. 담백한 육수와 어우러진 고사리는 훌륭한 식감을 자랑한다. 녹두 빈대떡도 식당의 인기 메뉴 중 하나다. 오전 6시부터 영업하는데, 아침부터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다.



📍 제주 제주시 서사로 11

한림칼국수 제주본점

제주 앞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보말이 들어간 칼국수 맛집. 직접 반죽하고 제면한 쫄깃한 면을 맛볼 수 있다. 매생이가 들어간 국물은 고소하면서도 칼국수와 어우러져 간을 맞춘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3시까지 영업하기 때문에 일찍 가는 것이 좋다.



📍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39

리보스코화덕피자

전국 최초의 해녀툰도우 피자를 판매하는 식당. 감자채 튀김 위에 자연산 톳을 얹은 한라산 용암피자, 먹물 치킨을 올린 현무암 유채꽃 피자 등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피자를 경험할 수 있다. 특별한 토핑들이 치즈와 어우러져 더욱 풍부한 맛을 낸다.



📍 제주 제주시 수목원길 27 리보스코화덕피자 연동점

중문그매그집

흑돼지 숙성구이 전문점. 최상급 숙성고기를 사용해 고기의 풍미와 육즙을 느낄 수 있으며, 고사리를 구워 멜것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 흑돼지와 목은지의 감칠맛이 더해진 흑돼지 김치찌개도 인기 메뉴다. 야외에 애견동반석이 갖추어져 있으며, 주차가 편리하다.



📍 제주 서귀포시 상애로 181-28

숙소 정보

신청방법	(홈페이지) KATE → EPR → 복리후생 → 신청 → 휴양시설 (모바일) KATE → 마버서 → 휴양시설
한화리조트 제주	제주 제주시 명림로 575-107
오션스위크 제주호텔	제주 제주시 탐동해안로 74
금호제주리조트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22-12 금호제주리조트

<인어공주>와 '정치적 올바름'을 둘러싸고

글 / 이명원. 문학평론가·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디즈니의 실사판 <인어공주>에서 에리얼(헬리 베일리 분)이 금발의 흑인으로 설정된 것에 대해, 이것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로 약칭)의 관점에서, 1989년 판본의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의 '원본성'을 과도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에서의 에리얼은 빨간 모발의 백인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평론가 노정태가 다른 칼럼에서 지적한 바 있듯,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역시 안데르센 원작의 <인어공주>의 '원본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면서 그 고유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환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안데르센의 원작 <인어공주>에서 에리얼은

POLITICAL CORRECTNESS

왕자를 만나기 위해서 다리를 얻지만 목소리를 상실한다. '목소리의 상실'은 여성 주체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스스로의 욕망을 발성할 수 없다는 것은 주체성의 부재를 암시한다. 실제로 안데르센의 <인어공주>에서는 왕자와의 사랑이 좌절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종결되고 있다. 반면 1989년에 제작된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는 당당한 욕망의 주체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도전적이고 지적인 호기심이 가득한"(노정태) 인물로 재현된다. 인어공주가 수동적 대상에서 능동적 주체로 변용되고, 서사의 플롯 역시 비극적 결말에서 낭만적이며 낙관으로 수정이 가해진다. 어쩌면 이것은 <인어공주>를 둘러싼 근본적인 플롯의 '훼손'이기보다는 '전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실사판 <인어공주>는 1989년판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의 플롯은 그대로 유지한 채, 캐릭터의 '외모'라는 점에서의 부분적 변용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빨간 머리의 백인 캐릭터를 금발의 흑인으로 변용한 것이 그것인데, 이것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관객들에게는 과잉된 PC주의에 따른 원본성의 왜곡 혹은 훼손으로 논란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것도 근본적인 변용이라면 변용이겠으나, 서사구조나 플롯의 변용에 비하자면 캐릭터의 '부분적 수정'은 실제로

그렇게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처음 실사판 <인어공주>를 둘러싼 PC주의 논란이 있었을 때, 과연 캐릭터의 변용을 굳이 그것과 관련시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개인적 의문을 느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디즈니가 제작했던 애니메이션들은 종래의 백인 중심의 주인공 캐릭터 대신 상호 문화주의(inter-culturalism)적 관점에서, 유색인종 캐릭터들을 실로 빈번하게 등장시켜 왔기 때문이다.

<물란>, <포카혼타스>. <공주와 개구리>, <모아나> 등과 같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을 인종의 프리즘으로 보면, 흑인, 아메리카 인디언, 태평양계 원주민, 중국인 등



다인종·상호문화적 성격이 눈에 띈다. 물론 이는 글로벌화된 시장의 잠재적 관객 창출 목표와 관련이 있다.

그런 점에서 1989년판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의 스토리와 플롯은 그대로 유지한 채 여주인공 캐릭터만 백인에서 흑인으로 변용한 실사판 <인어공주>의 제작은 디즈니 사의 일관된 상호 문화주의 적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했다. 다만 한국에서 그것이 '과잉된 PC주의'라는 구도의 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은 또 그것대로 해명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것이 201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한국에서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 운동이

격렬하게 부상한 이후, 종래의 국가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제도정치(politics) 대신에 이른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가 극적으로 부상한 것의 한 반응이라고 해석한다. 인종·성·소수성 등을 포함한 '정체성' 및 '정치적 올바름'의 개념에 근거한 비평적 분석과 가치평가가 주류화되자, 반대로 '작품의 자율성'을 옹호하거나 '예술의 낭만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대중의 수용감각 역시도 그만큼 활성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디즈니의 실사판 <인어공주>의 제작진이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에리얼의 캐릭터를 변용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감독의



관점에서는 실사판 <인어공주>를 제작하는데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정전(canon)으로 확립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와는 다른 '고유성(originality)'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유통될 수밖에 없는 실사판 <인어공주>는 그것이 수용되는 지역과 집단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란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모든 이야기들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낳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수정'되고 '분기'되고 '진화'해나간다는 사실이다. 특히 <인어공주>와 같이 민담에서 출발하여 동화와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장르로 진화해 가면서 세계인들을 사로잡았던 작품들은 이러한 경향을 피하기 어렵다.

조합원의 삶을 더욱 풍성히! 2023 단체교섭 합의안 살펴보기



2023년 단체교섭은 9월 12일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13차례 교섭회의 끝에 10월 16일 본협정을 체결하면서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 역시 노동조합은 끈질긴 협상을 통해 크고 작은 쟁거를 만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삶을 더욱 풍성히 가꿔줄 결실을 살펴봅시다!



임금

임금이 3% 인상됩니다. 인사평가인상률 2% 포함 시 총 5%가 인상되는 셈인데요.

※직원 1인 평균 연 235.5만 원 (기본급 154.5만 원, 평균 3% 수준)
▷기본급과 연동된 성과급, 초과근무수당 인상액 포함



인상된 임금은 2023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임금인상 소급분(1.1~9.30) 지급일 : 2023. 10. 25(수)
*별도계좌 지급 - 10월 급여분부터 인상분 반영 지급



회사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 하고자 경영성과격려금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모두가 화합하고 합심하여 최고의 ICT기업으로의 도약을 기대합니다.



복지
업무용 단말기의 평균 교체 시기가 되었 습니다. 최신 단말기는 조합원의 업무 능률을 높일 뿐 아니라,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대상: 합의일 현재 재직자 중 지급일 현재 재직자 (시니어 직원 포함)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0만 원



배움에 나이가 있나요? 입사 10년차 이내, 만 40세 미만에 지급되던 미래육성포인트가 입사 20년 이내, 만 50세 미만에 확대 지급됩니다.

자기계발 더욱 열심히 하는 KT인 되자고요!



주택구입자금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제도는 조합원의 사기를 진작시킵니다. 사내근로복지금 860억 원을 출연합니다



제도
시니어 직원들은 경력과 전문성, 안정적 리더십을 제공하며 차세대 직원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개선해 시니어들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상자 확대



우수 인재의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KT!

*우수 인재 동기부여 강화 및 사기진작 방안은 추후 노사간 별도 협의로 진행



내년부터는 더욱 영양가 높고 맛있는 밥상이 조합원들을 기다립니다. 노사공동위원회가 구성돼 양질의 식사 제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셨나요?

조합원의 삶터, 일터에서의 만족감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2023년 단체교섭 찬반투표 찬성률 92.52% 가결



2023년 10월 13일(금)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한 임시 조합원 총회 최종 집계 결과, 2023년도 단체교섭 가협정(안)에 대해 KT노동조합 및 새노조 조합원 15,006명 중 12,41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총 82.7% 투표율과 찬성 11,482표(92.52% 찬성률)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합원 총회 결과 지방본부별 및 새노조 찬성률은 다음과 같다.

구분	찬성률(%)
강북지방본부	96.4
강남지방본부	94.8
부산지방본부	96.5
대구지방본부	95.6
본사지방본부	82.9
호남지방본부	96.5
충청지방본부	94.9
새노조	4.8
전체	92.52

하반기 신입 조합원 대상 특강 실시



KT노동조합은 9월 20일(수) 그룹인재개발실 원주아카데미에서 2023년도 하반기 신입 조합원 92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노동조합 역할 ▲노동조합 조직구성 ▲KT 복지제도 ▲다운플랜 상조서비스 안내 등으로 진행했다. 한승학 교육국장을 비롯한 파견된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먼저 노동조합 중앙본부의 역할 등을 소개하고 KT노동조합의 역사와 복지제도, 근로조건 개선사항 등 현재 단체교섭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김인관 조직처장은 신입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방안에 대해 그 어느 사업장보다 선도적으로 정책이나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인재가 되길 바라며 노동조합도 신입 조합원과 함께 KT의 미래를 위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워크숍 진행



KT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5일(화)부터 1박 2일간 대관령수련관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에 있을 15대 각급 조직 대표자 선출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관장하기 위한 것이다. 첫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KT노동조합 규약 제48조 및 제24조에 의거, 민주적인 절차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관련 관리 규정 및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과거 사례 등을 분석했다. 한편 이날 교육은 KT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승찬 대표위원이 진행을 맡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정 중립을 유지하고 공정한 선거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세 및 행동지침에 대한 강의를 이끌었다.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 대표자회의 개최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의장 : 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는 9월 4일(월) KT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각 그룹사 현안을 공유했다. 최장복 의장은 각 단사의 이슈 등을 보고받은 뒤 “알려진 대로 KT도 약 8개월간의 경영 공백 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대표체제를 맞았다”고 말한 뒤, “노동조합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는 현장과 조합원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노조협의회가 결성된 이후 우리는 단일한 대오와 강력한 연대의 힘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단위노조가 아닌 전체 그룹사 노동자의 이름으로 변화와 혁신에 대응하자”고 독려했다. KT그룹노조협의회는 KT노조를 중심으로 KT에스테이트, KT링크스 등 18개사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 협의체이다.

2023 회계연도 상반기 회계감사 총평



KT노동조합은 9월 1일(금), 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2023 회계연도 상반기 회계감사 총평 시간을 갖고 수감 결과를 경청했다. 회계감사위원회 김종규 대표위원은 이날 “지난 8월 29일부터 회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었다”며 “조합원 수 감소에 따라 조합비도 매년 경감되고 있는 만큼 더욱 꼼꼼하고 알뜰히 집행해 달라”라고 총평 소감을 밝히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최장복 위원장은 먼저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주일 간 수고해 주신 대표위원 및 회계감사 위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고 “조합원들을 위해 마지막 감사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폐증 환우 위한 희망박스 전달



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은 8월 7일(월), 강원지역 진폐증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KT 노사공동 희망박스를 전달하고 환우들을 격려했다.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어 고생하는 광산 노동자의 현실을 환기하고 환우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전달식에는 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과 김인관 조직처장, 평창 및 태백 지부장, 회사 관계자와 강원 광산진폐권익연대의 구세진 회장 등이 함께했다. 최장복 위원장은 먼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1960년대~1980년대 국가 에너지 산업현장에서 몸 바쳐 헌신하셨던 광산 노동자들과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진폐증 외에도 소음성 난청, 피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산재 승인 과정도 쉽지 않고 진폐증에 대한 인식 확산에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광산 노동자의 현실”이라며 “KT 노사 희망박스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국가와 사회 전반에서 진폐증 환우를 위한 지원과 정책이 잘 시행되기를 KT 노사가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노동조합 시행



KT노동조합은 7월 20일(목), 중앙본부 조합 간부들을 파견, 강북지방본부 고양지부 및 강남지방본부 안양, 수원지부에서 조합원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중앙상무집행위원 조합 간부를 만난 조합원들은 업무 시스템과 관련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장복 위원장은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함께 고민하며 개선해 내는 활동이야말로 현장 중심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찾아가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조합원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조합원에게 힘이 되는 노동조합의 책무를 완성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14대 집행부는 찾아가는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지부 현장에서 제기된 조합원 건의사항이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여 즉시 해소하고 있다.



추계 체육행사 시행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추계 체육문화행사를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다.



업무용 PC 교체 및 카세어링 확대

업무용 PC 교체 및 업무용 차량 카세어링 확대 운영이 올해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법정사유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확정기여형 전환을 시행했다.



3분기 희망퇴직 시행

2023년 3분기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9월 성과급 지급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G직을 대상으로 9월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4분기 시니어 컨설턴트 선발

직무전문성이 높은 정년퇴직 예정자를 고용하는 제도인 시니어 컨설턴트를 지원받았다.

가을 휴양소 운영 안내

이용 기간 | 수련관·호텔&리조트 : 08.30(수) ~ 11.28(화) / 콘도 : 신청일 기준 15일 이후, 120일 이내

정기 배정일 | 수련관·호텔&리조트 : 7.13(목) ~ 7/19(수) / 콘도 : 상시

▶ **승인일** | 수련관·호텔&리조트 : 7.20(목) / 콘도 : 매주 월/목

▶ 신청방법

- PC: KATE → ERP → 복리후생 → 신청 → 휴양시설
- 모바일: KATE → 마비서 → 휴양시설
- 수련관, 호텔&리조트, 콘도 선택 / ‘이용시기’ 선택 후 조회 및 신청
- 당해년도 미이용 직원은 신청사유를 ‘당해년도 미이용’ 선택하여 신청

▶ **선정순위** | 생활입소 → 당해년도 미이용 → 저이용 → 저지급 → 저연령순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소식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터>를 읽은 느낌과 생각을 퀴즈 정답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IT부문 IT전략본부 IT아키텍처담당

DevOps엔지니어링팀 조명희

이번 소식지는 노랑색으로 화사한 느낌이에요~ ‘여름을 부탁해! 강원’ 소식 잘 봤습니다. 업무로 바빠서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카툰은 분야별로 바뀌는 사항이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간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 보기 좋았습니다. 차기 대표이사 선출이 확정되면 <터>를 통해 소감 및 목표 등 인터뷰 기사 올라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강남/서부광역본부 서부고객본부

구로지사 개봉지점 CM1팀 김모상

항상 <터>를 읽고 있는 사무원입니다. 이번호는 번아웃증후군이 눈에 들어오네요. 일한 만큼 쉬자! 연장근무를 자주하는 저로서는 좋은 글인 거 같습니다. 항상 몸 챙기면서 일해야겠네요.

대구/경북NW운영본부 대구엑세스운영센터

대구선로팀 김나희

아직 여름휴가 계획을 못 정했는데 강원도 관광지뿐만 아니라 맛집, 숙소 정보까지 알차게 정리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해서 즐거운 여름휴가를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내용으로 가득한 소식지 기대합니다.

전남/전북광역본부 사업지원부 조직운영팀

전북조직운영TF 이지영

<터>는 코너 하나 하나 정성이 뚝뚝 담긴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독을 하게 되더군요~ 노동조합 소식,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사라진 공중전화 역사 등 유익한 정보 잘 습득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벌써 다음 호가 기대되고 기다려지네요!

Enterpsrise부문 Enterpsrise BDO Group 맹준복

요즘 더운 날씨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노조소식지 <터> 덕분에 기운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번 호도 번아웃증후군에 대한 알찬 내용들이 많아 번아웃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소식, 알찬 정보 많이 많이 공유 부탁 드립니다.

경영기획부문 SCM전략실 신사업SCM담당

DX상생전략팀 박주형

이번 <터> 소식지에서 번아웃증후군 극복법을 읽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일에 지친 선배들에게도 극복법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강원도 여행지 소개는 휴가철인 지금, 기존 알고 있었던 장소 외에도 새로운 곳을 알게 되어서 다음 여행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강남/서부NW운영본부 강남/서부코어운영센터

강남코어망제어부 VoLTE운영팀 정용배

바쁜 업무로 잊을만할 즈음 kt노동조합 게시판에 배포되는 <터>를 통해 이번엔 또 어떤 재미난 내용이 담겨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올 여름 폭염이 계속 되고 있는 때에 ‘여름을 부탁해! 강원’을 읽고 강원도로 며칠 동안 휴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늘 한결같이 소중하고 유익한 소식에 감사합니다.

부산/경남고객본부 동부산지사

동래지점 CM3팀 나형자

노동조합 소식과 함께 우리가 알면 유익한 내용들이 가득한 <터>는 직원들한테 유익하고 상식적인 내용이 많고 요즘 트렌드를 잘 따라가서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번 호 중 번아웃증후군 자가진단은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가진단법과 함께 번아웃 증후군 극복법도 나와있어서 더욱 도움이 됐습니다.

KTTU 초성 QUIZ

네모 칸 속 초성과 힌트를 읽고 낱말을 완성해 보세요.

정답과 함께 소식지 [터]를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예 : ktcs → 노동조합]

보내실 곳 | mabin@kt.com(김민수 편집국장)

ㄱ ㅍ ㅈ

우리나라 최대 직업병이자 아직도 치료법을 찾지 못한 난치병의 이름은? (8페이지 참고)

ㅅ ㅇ 오 ㅈ ㅂ ㄱ ㅅ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관련 규정이 명시된 법률의 이름은? (17페이지 참고)

ㅅ ㅉ

LG유플러스는 자사 소셜미디어(SNS) ○○의 출시를 밝히며 3년 내 월 이용자 100만 명을 확보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20페이지 참고)

kt 임직원 감사 답례품(기프티쇼) 할인 안내

최대할인
10%

임직원님의 애경사를 같이 해주신 분께 답례 시,
조금이나마 편익을 드리고자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쇼)을 할인해 드립니다.

★ 이용 방법 및 절차

· 다운플랜 홈페이지 (daonplan.com) > 소식 > 회사소식에 공지 확인

★ 할인 안내 (판매가 금액 합계)

금액대 구간	할인율
3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3%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5%
2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7%
400만 원 이상	10%

발신번호 별로 할인을 책정하며, 할인율은 상품 판매가 합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초 구매 시 상품 판매가 합계 기준 최소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최초 구매 후 추가구매는 7영업일 내에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최초 구매 시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ex) 최초 구매 100만 원 : 5% 할인 적용
→ 추가구매 20만 원 : 5% 할인 적용

추가구매로 인한 누적금액의 합산 할인을 적용은 불가합니다.
ex) 최초 구매 50만 원 : 3% 할인 적용 / 추가구매 150만 원 : 5% 할인 적용
→ 최초 구매 50만 원에 대해 추가 2% 할인 적용 불가

★ 유의 사항

- 해당 기프티쇼는 B2B 프로모션 선물용으로 유효기간은 60일이고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 해당 기프티쇼는 유효기간 도래 전 안내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KT멤버십 중복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선물용이기에 본인 사용용도로 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선택 가능한 상품은 물품교환형입니다.
- 부득이 금액형 또는 상품권 등 일부 상품 선택 시 할인 미적용 및 판매가 합계 시에도 산정 제외
- 신청 시간(영업일 09:00~17:00) 이후 신청 시 익영업일 발송됩니다.

★ 할인 예시

브랜드	상품명	판매가(원)	수량(개)	소계	비고
스타벅스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 Tall	4,500원	100	45만 원	커피 1잔
스타벅스	부드러운 디지털 세트	13,500원	100	135만 원	커피 2잔, 조각 케익 17개
베스킨 라빈스	골라먹는 와썹원	27,000원	30	81만 원	아이스크림 케익
판매가 합계					261만 원

→ 7%할인 (182,700원)된 금액 2,427,300원을 입금

문의 다운플랜 1577-1555 (ARS 3번)

아플 때  힘이 되는

가족사랑 헬스케어 서비스

· 헬스케어서비스란?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부터 질병 발병 후 치료 지원의 단계를 면밀히 관리해 드리는 서비스

 헬스 콜 서비스 1577-1555 → 4번

- 지원 대상 다운플랜 회원과 직계가족
- 이용 시간 24시간 365일



일상 케어 +

- 건강상담
- 병원 및 명의 안내
- 검진 상담 및 우대 예약
(KT 복지제도에서 검진 지원되는 분은 제외)



질환 케어 +

- 상급종합병원 진료 예약
- 간호사 진료 동행
- 차량 에스코트



※ 가족사랑 헬스케어서비스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다운 헬스케어 콜센터 (☎1577-1555 → 4)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콜센터
☎ 1577-1555 → 4



모바일 앱
[KT다운헬스케어]



서비스 이용